



‘펜폴즈 3대 아이콘 와인, 호주를 대표하는 최상급 카베르네’

펜폴즈 빈 707 카베르네 소비뇽

Penfolds BIN 707 Cabernet Sauvignon

지역	호주 > 남호주 > 맥라렌 베일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8~20℃		
테이스팅 노트	빈 707 카베르네 소비뇽은 맥라렌 베일, 쿠나와라, 바로사 밸리에서 소성한 포도의 합들로 만들어진다. 맥라렌 베일에서 소성된 포도는 호화롭고 풍요로운 풍미를, 쿠나와라에서는 테라로사 토양의 미네랄리티와 earthy한 뉘앙스, 바로사 밸리에서는 단단한 코어와 초콜릿, 타바코 등의 풍미를 얻어냈으며 세 가지 원액의 블렌딩으로 탄탄한 구조감, 훌륭한 밸런스를 선사한다. 리치한 텍스처 속에 넛맥과 커스터드의 뉘앙스가 풍기는 가운데 베리, 플럼 콤포트의 플레이버가 지속적으로 느껴지며 흑연의 은은한 힌트가 동반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면에서 잘 연결되어 있음을 마셔보는 순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페어링 TIP	붉은육류/단단한치즈/훈제,염장음식/밀가루음식(피자,파스타외)		



제품설명



'빈 707 카베르네 소비뇽은 펜폴즈 하우스 스타일을 완벽하게 표현한 최상급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1964년 출시 당시, 가장 잘 높이 날던 '보잉 707' 비행기에서 네이밍을 착안했다.

<그랜지>와 <야타나>와 더불어 펜폴즈 3대 아이콘 와인이자 호주 최고급 와인 등급 '랑톤'에 1순위로 등재된 와인이다.

수상내역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7점 TOP 100 선정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가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